

한국 대학의 국제화

김 달 중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학대학원장



1. 국제화 시대의 한국 대학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대학교육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많은 국내 대학들이 국제화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국제적 연구활동 그리고 학생·교수 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제한된 수이긴 하나 국제대학원(혹은 국제학대학원)을 이미 설치 운영해 오기도 하고 또한 신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학들이 국제화 교육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자하려는 현 추세에 맞추어 정부도 대학의 국제화 혹은 국제학 교육을 적극 지원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국제환

경이 제공해 주는 기회에 과감히 도전하고,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인은 다른 나라의 사정과 세계 속의 문제들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역시 한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이 국제화라는 정향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에서 국제화의 문제는 개념상 대학교육을 국제적인 수준 혹은 세계적인 수준과 내용으로 만드는 질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내용과 수준으로 만드는 형식적인 방법상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 대학의 국제화는 이 두 측면의 개념, 즉 대학교육의 질적인 내

용상의 국제화 개념과 형식적인 방법상의 국제화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 대학의 국제화는 대학 교육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질적인 향상 문제와 방법상의 효율성과 제도적 합리성의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2. 교육의 국제화

대학교육의 질적인 내용상의 국제화도 대학이 지금까지 이행해 오고 있는 전통적인 교육과 연구의 역할과 기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교육의 국제화란 먼저 교과과정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인문·사회·자연과학의 기존의 기초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혹은 지구촌적인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교과과정의 도입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 혹은 지역에 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 영어는 물론 주요 외국어 교육의 확산과 심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질적 수준의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교육의 국제화에서 다른 한 측면은 교육 대상자의 국제화를 의미한다. 국제화 교육의 일차적 대상자는 물론 한국 대학생이다. 이제 교육의 국제화는 교육 대상자를 국제화함을 의미한다. 지난 날에는 한국 대학생들이 졸업후 혹은 재학중 다른 선진 외국 대학에 유학하는 것이 국제화였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국제화는 오늘날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내 대학에 와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국제화의 주요 국면이 되었다. 한국 대학은 더 많은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여 한국어와 한국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을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발전도상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더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의 이론과 실재를 배

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들이 한국의 과학·기술을 더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의 국제화 목표를 위한 실천방안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의 국제화는 국제화를 위한 핵심 교과과정의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문·사회분야의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분야의 교과과정이 개발되어야 하며, 한국 학생들을 위한 비교문화 과목과 지역 연구 및 국제문제 과목이 강화되어야 한다. 외국어 교육은 적극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교수방법의 국제화이다. 외국어로 교수하는 과목을 전교 차원으로 점진 확대하는 방안이다. 한국인 교수가 외국어로 강의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외국어로 강의하는 교과목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외국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 대학과의 학생교류를 위한 협력체제 수립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실천방안은 외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 자체의 노력도 필수적이지만, 정부와 민간 기업 혹은 공익재단 등으로부터의 지원 협조가 불가피하다.

넷째, 교육의 국제화를 위하여 외국인 교수를 전임교수로 임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정부 차원과 대학 차원에서 관련법령과 규정의 정리가 시급하며, 많은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및 도서관 등 연구시설 확충은 물론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과 외국인 교수를 위한 교수아파트 시설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지원이나 정부의 과감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학 구성원, 즉 교수, 학생, 직원들의 국제화 의식을 고취하고 함양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여 거교적 차원의 특강

을 갖는다든가, 다양한 국제문제를 주제로 한 강연 그리고 외국 대사의 초청강좌 등은 대학 구성원의 국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고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국제적 학술행사나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는 학생과의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학생회 혹은 동아리 활동으로 세계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연구회'를 활성화한다든가, 선택적으로 주요 특정 국가 연구회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들이 어울려 대화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World Fellowship Center나 International Student Club, 외국인 학생의 한국인 가정방문 프로그램, Host Family 프로그램, '국제문화·친선 주간' 설치 그리고 한국의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실제 현장교육을 위하여 파견교육하는 인턴십 등은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3. 연구의 국제화

연구는 교육과 함께 대학 역할의 양대 지주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국제화는 한국 대학 국제화의 핵심이 된다. 연구중심의 대학원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대학은 국제적 수준의 연구소를 전략적으로 지원 육성함이 필요하다. 국제 수준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요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 외국 학자와 전문가들과 연구, 학술회의 그리고 출판물을 포함한 일련의 공동연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의 국제화에서 대학출판사의 활성화와 국제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결과를 출판하고 이의 보급을 세계화하는 일은 대학의 세계화를 위한 지름길이다. 또한 한국과 아·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발간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의 국제화를 위하여 도서관의 도서와 자료의 확충은 물론 자료와 정보의 국제화는 필수적 요건이 된다. 세계 주요지역 혹은 국가 그리고 국제문제에 관련된 전문화 및 특성화된 도서관 운영도 연구와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주리라고 본다. 도서관의 역할이 장서와 열람의 기능뿐만 아니라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4. 제도의 국제화

한국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를 통하여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하여는 대학의 조직과 제도 그리고 그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교육의 국제화를 위하여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학 전반의 교과과정 내용과 교육방법을 국제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국제학 그리고 지역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부수준의 국제학대학과 전문대학원으로서의 국제학대학원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학부수준의 국제학대학 설립 운영은 비교적 용이하다고 본다. 그러나 외국 학생까지 포함하여 영어 혹은 기타 외국어로 강의하는 전문대학원으로서 국제학대학원의 설치 운영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실성 있는 국제학 분야의 교과목을 교육하는 것과 적정수의 대학원 전임교수를 확보하는 문제는 필수적 조건이 되어야 한다. 국제학 관련 기존학과와 전임교수와 외부 전문가만으로 강사를 초빙하게 되는 경우, 교수 편의 위주로 선정된 교과과정이 주로 개설될 가능성이 많으며 학생지도와 논문지도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대학원의 핵심과목 강의와 대학원 학사행정과 학생지도를 담당할 적정수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그 이외에 다양한 강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급증하는 국제분야 전문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원 설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종합대학, 대기업 그리고 정부산하 주요 정책연구기관이 전문대학원 설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국제적 수준의 전문대학원 설치의 가장 바람직한 주체는 종합대학교이다. 그 중에서 비교적 학문적 수준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있고, 국제프로그램이 이미 어느 정도 활성화·제도화 되고 개방적인 대학일수록 국제적 수준의 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국제화 전문대학원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간접자본(academic infra-structure)이 배후에 필요한 것이다.

둘째, 외국 대학과 학생 및 교수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 운영한다든가 또는 이러한 부서가 이미 존재한다면 부서의 조직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일이다. 한국 대학의 국제교류 업무는 총장실, 부총장실, 기획실, 교무처, 대학원 등 몇몇 부서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총장이 국제교류 업무에 귀중한 시간을 지나치게 할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교류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 업무를 체계적 전략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는 '국제교류처' 혹은 '국제교육부'와 같은 부서를 설치하여 적정 직원과 통합적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국제교류처는 교수·학생의 국제교류는 물론 다양한 국제프로그램의 개발, 국제홍보, 국제의전, 외국 학생 및 교수의 의료 및 보협관리, 생활지원 및 숙소관리, 외국인 졸업생(동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셋째, 대학내 국제교육, 연구 그리고 교류협력을 주관하는 부서들을 대학 전체 차원에서 조정하고 협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제교육·연구기관협의회'와 같은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국제교육, 연구, 교류

등 국제분야를 전담할 국제담당 '국제부총장' 직제의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제부총장은 국제교육·연구기관협의회를 관장하고 국제분야에서 총장을 보좌한다.

넷째, 대학의 국제화를 위하여는 직원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국제 관련 교육, 연구, 교류협력 부서의 직원은 외국어 능력을 갖춘 국제교육행정 전문직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제교육행정 전문직원은 가능한 한 국제 관련 부서에만 순환근무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전문직원의 해외연수도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인 직원도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한국 대학의 국제화는 오늘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어찌보면 지난 한세기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고 본다. 그러나 급속히 지구촌화 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하여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경쟁하고 협조하며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일을 위하여 한국 대학의 국제화 노력은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국제화는 하루 아침에 서둘러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필요한 재원의 과감한 투입과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일이다. ■

김달중/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대만 국립정치대학 외교연구소 법학석사, 미국 터프트 대학에서 국제법·외교학 석사,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한국 세계지역연구협의회 회장,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학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정치학회 부회장 및 1997년 동 학회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 외교정책』, 『북한 및 사회주의국가 외교정책』, 『해양국제정치』 등이 있고, "동북아 국제정치 및 남북한 통일문제"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